opusdei.org

성체성사의 해, 새 사 제들

하비에르 에체바리아 주교는 지난 5월 21일 오푸스 데이의 42 명의 새 사제들을 서품 했 다. 새 사제들은 나이지리아, 미국, 필리핀 외 여러 유럽과 남미 국가 출신들이다.

2005-5-31

2005년5월21일

3000여명 되는 가족과 친지들이 서품 예식에 동반하였고 예식 후 새 사제들의 행진 동안 박수 갈채를 보냈다. 이들 사이에 새 사제 호세 기라오의 친형제가 기타주자도 활동하고 있는 팝 밴드 "Second"의 일원들도 있었다.

에체바리아 주교는 이날 미사 강론에서 사제품 받을 후보자들에게 "오늘 그대들에게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성 체 성사를 성별하는 은총과 임무는, 이와 함께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것" 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였다.

새 신부들에게 오푸스 데이 단장은 덧붙여 "예수 그리스도의 사제" 이며 또한 "예수 그리스도를 광적으로 사 랑하는 죄인" 이라고 자신을 인정하 던 성 호세마리아의 모범을 본받으려 고 노력하라고 권하였다. 주교는 또 한 "앞의 2사항은 완전히 조화되어있 다. 우리 창설자가 가리켰듯이, 사제 의 비길 바 없는 존엄성은 대단한 은 총이지만 개인의 하찮음과 양립할수 있다"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하였 다.

단장은 예식에 참여한 가족들에게 "새 신부들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기도가 필요하다. 하느님이 당신의 새 그리스도님의 사제들을 꼭 돌보아주실 것에 대해 감사 드려야 하며, 우리는 주님께서 온 세상에 더 많은 신부들을 보내주시도록 빌어야 한다고말했다.

호르헤 신부님 과 안소니 신부님

스페인 바스크지방 출신 호르헤 욥 (46) 신부는 젊었을 때 러시아 문학과 체육에 흥미를 많이 가졌던 공학자였다. 몇 년 전에 중병에 걸려 몇 개월 간을 병원에서 지냈어야 했었다. "오 푸스 데이 단장이 저의 긴 회복기간중에 10통이 넘는 잊지 못할 편지를 저에게 보내셨습니다. 내가 어떻게 투병하고 있는지를 자주 확인하셨지

요." 호르헤 신부는 이 경험에 대해 "모든 일은, 괴로운 것 까지도, 각 인 간에게 베푸시는 하느님의 섭리입니다. 이 사실은 그런 일들의 뜻을 보다쉽게 찾을 수 있게 하지요. 왜냐하면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신비에 그와 같은 의미를 주셨으니까요. 인간의 십자가 신비는 예수님의 십자가신비에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."

새 사제 안소니 바바패미 (33) 는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영국 국교도 신자인 아버지와 가톨릭 신자인 어머니사이에 태어났다. "나의 인생에 결정적인 역을 맡으신 성 호세마리아는성소의 90%가 양친 덕이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. 그러니 우리는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.

5월4일, 아직 부제일 때 안소니 신부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시신을 크래멘티나 홀에서 성 베드로 대성당내부까지 운구 할 때 참가할 수 있었다. "교황전하를 가까이에서 보고, 그

분을 동반하며 성 베드로 광장에 모 인 수많은 신자들과 함께 매우 특별 한 기도를 할 수 있었다"라고 말했다.

www.opusdei.org 의 웹 마스터도 사품 받아

경험 많은 웹 마스터로 활동해 오던 멕시코출신 신문기자 후앙까르로스 이바라는 1998년 부터 신학공부와 웹 마스터직을 같이 해오고 있었다. 이 웹 사이트 구독자 들에게 "새 사제 들은 여러분의 기도의 도움에 의지할 것입니다" 라고 상기시켰다.

웹 편집자로서의 일에 대하여 후앙까 르로스 신부는 "아주 풍부한 경험이 었습니다. 인터넷 그 자체의 융통성 때문에 오푸스 데이의 정신과 교회의 뉴스 전할 때 많은 독창성을 요구합 니다. 온 갓일 을 다해 보고 성공과 실패에서 배웠습니다. 독자들이 우리 들에게 보내주는 메시지에서 많은 격 려를 얻었습니다. 2003년 한해 동안 70개국으로부터 15,000통의 색다른 메시지를 보내왔다. 그 중에는 성 교회와 오푸스 데이회에 관한 질문, 믿음의 증언, 성 호세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구한 은혜 이야기들, 기도를 부탁 하는 요청 등 이었습니다. 그 중하나는 특히 기억에 남아있는데 중국베이징의 '지하 교회'에 속하는 젊은 사람이 그의 믿음과 로마 교황 전하에게 자신이 계속 충성할 수 있도록우리들에게 기도를 부탁 하는 것 이었습니다."

후앙까르로스 신부는 "나에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마지막 날들은 사 제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을 지녔는 지에 대한 중요한 수업이었다" 라며 "나는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를 위 해 기도하는 것이 특별한 임무로 느 껴집니다. '하얀 연기의 날' 나는 몇 년 전 시야를 잃은 친구와 함께 있었 습니다. 그는 나에게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번 성 베드로 광장에 왔었는데 그곳에 모인 수많은 신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'교회는 살아있다' 는 사실을 이해 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. 그경험은 그 친구가 품고 있던 믿음에 대한 환멸을 희망으로 변화시켰습니다.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즉위 미사강론 중 '교회는 살아있다' 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더 깊게 새겨졌습니다. 이것은 제가 새 교황전하를 도와 그생활력을 저의 성소의 길에서 만날모든 이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." 라고 추가 하였다.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 seongceseongsayi-hae-sae-sajedeul/ (2025-11-20)